

# 연인두 폐쇄부전 아동의 보상조음과 정조음에서의 비음치 변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이 은 경\* · 손 영 익

## 목 적 :

구개열 등으로 연인두 폐쇄 부전이 있을 때 보상조음이 자주 출현하며 대표적인 유형이 성문과열음이다. 보상조음이 있을 때 Nasometer를 통해 얻어진 비음치는 실제의 연인두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 수치를 해석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과열음을 성문과열음으로 대치시키는 연인두 폐쇄 부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상조음과 정조음일 때의 비음치를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대상은 성문과열음과 과비성이 있는 연인두 폐쇄 부전 아동으로 3.4세에서 12세 사이의 14명이며 구개성형술 8명, 점막하 구개열 4명, 연인두 성형술 1명, 편도비대 1명이었다. 비음치는 Nasometer 6200을 이용하였다. 검사어는 구강과열음으로 성문과열음의 보상조음일 때와 시도 치료 및 정기적인 조음치료를 통해 정조음을 산출하였을 때의 비음치를 각각 측정하였다.

## 결 과 :

구강과열음이 성문과열음으로 대치되었을 때의 비음치는 평균 41.8%, 구강과열음으로 정조음한 경우가 25.8%로 나타나 정조음 했을 때 비음치가 뚜렷이 감소하여 두 조음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또한 보상조음일 때는 14명 모두 기준치에 비해 증가한 비음치였으나 정조음일 때는 6명에서 비음치가 10% 내외로 정상 범위를 보였다. 두 명에서 실시한 연인두 내시경 검사에서 성문과열음에 비해 구강과열음일 때 연구개 및 인두측벽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서 연인두 폐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 결 론 :

공명 평가 시 성문과열음을 보이는 환자들은 잠재적인 연인두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과비성에 대해 과대평가할 수 있다. 보상조음을 소거하여 구강음으로 조음하였을 때 실제의 연인두 기능을 관찰할 수 있어서 수술적 처치의 필요성 및 언어치료로서의 호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